

‘장마 시작’...해남군, 집중호우 피해 최소화 ‘만전’

산사태·하천 재해 등 취약지 예찰...예방대책 점검·논의 명현관 군수 “선제적 대응·부서간 협조체계 유지” 지시

본격적인 장마가 시작된 가운데 해남군이 여름철 재해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만전을 기하고 있다.

30일 해남군에 따르면 지난 28일 장마철 집중호우 대비 긴급대책회의를 갖고, 여름철 재해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명현관 해남군수와 실과소 및 읍면장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대책회의에서는 호우피해 예방대책 추진 사항을 점검하고, 주요 위험지역에 대한 사전 예찰활동 등 현장점검 현황을 살폈다.

명현관 군수는 “본격적인 장마철이 시작되고, 많은 비가 예고된 만큼 실과소에서는 진행 중인 공사 현장과 주민 생활 시설에 대한 선제적 대응 체계를 갖추고, 읍·면에서도 다시 한 번 현장

점검을 통해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주문했다.

대책회의에서는 산사태와 하천 재해 등 취약지에 대한 사전 예찰활동을 통해 위험 요소를 사전 제거하고, 위험 발생 시 통제 및 사전 대피할 수 있는 장소 확보 등 안전 대책 마련에 중점을 두고 논의가 진행됐다.

해남군은 장마 돌입 이전에 읍·면별 현장점검을 마무리하고, 위험 지역·위험시설에 대한 사전조치를 실시해 주민들의 재산 및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또한 기상특보에 따른 선제적 대응으로 비상단계별 비상근무체제를 유지하고 재난안전을 위해 재난 마을방송과 긴급 재난문자 발송을 통한 주민행동요



해남군이 지난 28일 여름철 재해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장마철 집중호우 대비 긴급대책회의를 개최했다.

(해남군 제공)

령 전파, 기상특보에 따른 응급복구 활동 등 비상상황 대비체계를 강화할 방침이다.

한편 해남군은 여름철 집중호우, 태풍, 폭염 등 자연재난에 대비해 오는 10월15일까지를 특별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비상대응체계 구축 ▲산사태·하

천재해 등 인명피해 유형 집중관리 ▲폭염재난 대책 방안 수립 등을 중점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단계별 비상근무 계획 및 유관부서·기관 비상연락망을 정비하고, 인명피해 우려지역 10개소, 소화전 272개소, 급경사지 81개소 등에 대한 관

리실태를 점검했다.

또한 산사태 위험 지역 등 재해취약 지역에 대한 예찰 활동 강화와 하수도 정비, 배수펌프장 등 각종 수리시설 점검, 무더위쉼터 506개소, 폭염저감시설 37개소에 대한 점검도 병행하고 있다.

명현관 군수는 “주민의 인명 보호를 최우선으로 앞으로의 기상 상황을 잘 살피고 관련 부서간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해 여름철 자연재난으로 인한 인명 피해가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점검에 철저하겠다”고 강조했다.

/해남=박필용 기자

영암 대불산단, 스마트그린산단 변신 ‘본격화’

통합관제센터 구축...안전·환경·교통 등 실시간 관제

전남 서남권 최대 산단인 대불국가산업단지가 정보통신기술(ICT) 기반 첨단 안전 산업단지로 거듭날 전망이다.

30일 영암군에 따르면 군은 ‘영암 대불 스마트그린산단 통합관제센터 구축 사업’으로 노후 산업단지를 미래형 첨단 산업단지로 바꾼다.

이번에 구축될 통합관제센터는 인공

지능(AI), 사물인터넷(IoT), 시뮬레이션, 가상·증강현실 등 ICT로 실시간 데이터를 수집하고 관리·운영하는 스마트산단 핵심 기반시설이다.

구체적으로 영암군은 2025년 완공을 목표로 국비 등 130억원을 투입, 기존 CCTV통합관제센터를 안전·환경·교통과 중대재해 예방 최첨단 스마트 관제

센터로 확장한다.

디지털 트윈 기반 통합플랫폼으로 실시간 관제할 수 있는 지능형 교통체계를 구축해 각종 사고 예방, 교통 흐름 개선에 나선다.

나아가 지능형 CCTV와 가로등, 스마트 환경관리 및 중대재해 예방관리 시스템 도입으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고, 기업 임직원들에게는 스마트 웰터 서비스도 제공한다.

영암군은 기존 센터를 통합·확장하는 방식의 사업으로 인력관리 효율화, 예산 절감 등의 효과도 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영암군 관계자는 “혁신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관제센터 구축 사업을 성공적으로 진행해 영암 전체의 교통·안전·환경 등을 실시간으로 관제할 수 있는 스마트그린도시로 확장할 발판으로 삼겠다”고 밝혔다.

영광군의회, 하반기 원구성 마무리

의장에 김강현 의원 등 상임위원장 선출

영광군의회는 30일 “지난 28일 제20회 임시회에서 제9대 영광군의회 하반기 의장과 상임위원장 등을 선출했다”고 밝혔다.

후반기 의장에는 김강현 의원, 부의장에는 조일영 의원, 의회운영위원장은 김한규 의원, 자치행정위원장은 정선우 의원, 산업건설위원장은 임영민 의원이 선출됐으며, 7월1일부터 임기를 시작해 2년간 영광군의회를 이끌어 간다.

김강현 의장은 “동료 의원들과 함께 협력해 영광군의회와 군민 곁으로 더욱 가까이 다가가는 의회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집행부에 대한 철저한 감시와 견제로 영광



김강현의장 조일영 부의장

군의회의 위상을 높일 것이다”고 소감을 전했다.

한편, 영광군의회는 오는 11일부터 24일까지 14일간 제22회 영광군의회 임시회를 개최해 202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사항 보고 청취와 안전 심의 등 본격적인 의정활동에 돌입할 예정이다.

/영광=김동규 기자

전남서부보훈지청 “보훈가족 복지 증진·보훈문화 확산”

호국보훈의 달 포상식 개최

전남서부보훈지청은 30일 “지난 27일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2024년 모범 국가보훈대상자 및 대외 유공인사 포상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사진)

매년 6월 호국보훈의 달에 개최되는 포상식은 국가 및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국가유공자와 국가보훈 정책에 적극 협조하고 보훈가족의 복지증진에 힘써온 대외 유공인사를 포상함으로써 수상자의 자긍심과 사기를 진작시키고 보훈문화 확산에 기여하고 있다.

수상자는 국가보훈부 장관 표창 등 4개 부문 7명으로 ▲국가보훈부 장관 표창(모범국가보훈대상)에 김창식씨 등 3명 ▲국가보훈부 장관 표창(취업부문)에 김강희씨 등 2명 ▲국가보훈부 장관 감사패(복지 증진)에 HD현대삼호 ▲법무부 장관표창에 김창식씨 등이다.



모범 국가보훈대상자로 장관표창을 수여받은 김창식씨는 1989년 9월20일 육군에 입대해 34사단 소속으로 월남 전쟁에 참전하며 상이를 입은 국가유공자로, 2021년 5월부터 현재까지 대한민국의이군경회 신안군지회장으로 활동하며 신안군 보훈회관 건립, 독거노인·병상회원 등 불우이웃 돕기, 재해현

장 봉사활동에 적극 참여하는 등 지역과 국가사회발전에 기여한 공을 인정 받았다.

이항숙 전남서부보훈지청장은 “국가유공자들의 희생과 헌신에 대한 소중함을 되새기는 보훈문화가 일상 속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목포=정혜선 기자

함평 한우 농가 폭염 대비 지원

함평군은 30일 “축사의 여름철 고온 피해 예방과 사육환경 개선을 위해 34개 한우 농가에 198대의 축사 환풍기를 지원했다”고 밝혔다.

이번 축사 환풍기 지원사업은 이른 폭염에 대비한 선제적 사업 추진으로 6월 중 지원이 완료됐다.

축사 환풍기는 시설 교체 주기가 짧아 해마다 한우 농가에 추가 지원이 필요한 사업으로 함평군은 매년 축사 환풍기 구입·설치비 지원 예산을 책정하고 있다.

이상의 함평군수는 “올여름 지구의 온난화로 축사 내 고온으로 인한 가축들의 심각한 피해가 예상된다”며 “전남도에 축사 환풍기 지원과 고온 스트레스 완화제 확대 지원을 건의하는 등 농가 피해 최소화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함평=김연수 기자

완도군, 낙도에 해수 담수화 시설 구축

13억 투입...식수 원활 공급·가뭄 해결 기대

완도군은 30일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총 13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낙도 지역에 해수 담수화 시설 신설과 개량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해수 담수화 시설은 해수를 정수해 수돗물을 공급하는 시설로 완도군은 지난해 청산면 모서와 모동 지역에 해수 담수화 시설(용량 30㎥/일·2개소)을 구축했다.

올해 상반기에는 5억3천만원을 투입해 생일 덕우도(용량 30㎥/일)와 금일 황제도(용량 30㎥/일)의 해수 담수화

시설을 개량했다.

또한 5억5천만원을 투입해 군외 고마도(용량 30㎥/일)와 노화 마안도(용량 20㎥/일)에 해수 담수화 시설 개량 사업을 추진 중이며, 2억8천만원을 투입해 금일읍 우도에 시설(용량 10㎥/일)을 신설할 계획이다.

완도군 관계자는 “낙도 지역에 해수 담수화 시설을 구축함으로써 주민들에게 식수를 원활하게 공급하고 지속된 가뭄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완도=윤보현 기자

강진원 강진군수, 지역 현안 특별교부세 확보 ‘전력투구’

재난안전 예방 사업 등 행안부 방문 지원 요청

강진원 강진군수가 지역 현안사업 특별교부세 확보를 위한 전력투구에 나섰다.

30일 강진군에 따르면 최근 강진원 군수는 인구소멸 대응, 청년 인구 유치 등 지역 현안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특별교부세 확보를 위해 행정안전부를 방문, 송경주 지방재정국장, 진선주 교부세 과장을 만나 지역 현안사업 필요성에 대해 설명하고 적극 지원을 요청했다.

특별교부세 신청 사업은 강진읍 권역



강진원 강진군수(오른쪽)가 송경주 행안부 지방재정국장을 만나 특별교부세 지원을 건의하고 있다. (강진군 제공)

미금수구간 상수관로 신설 공사, 성화대 환경 정비 사업 등의 지역 현안사업을 포함해 도암면 만덕지구 배수시설 설치

공사, 마량면 오수관로 보수공사 등 재난안전 예방 사업들이 주를 이룬다.

강진원 군수는 “지난해 상수관로 노

후화로 인해 발생한 탁수 사고에 따라 주민들에게 맑은 물을 공급해 식수 안정 불안을 해소하고자 한다”며 사업의 당위성을 피력했다.

특히 도암면 만덕지구는 강진만과 만덕호 사이에 있는 저지대로, 여름철 집중 호우와 해수위 상승에 따라 상습적으로 침수 피해가 발생한다. 인접 농경지 등 재산·인명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배수펌프장 설치가 시급한 상황이다.

강 군수는 “집중호우·태풍 취약 지역은 매년 주민들의 재산 피해를 야기하고 있다”며 “피해 최소화를 비롯해 군의 선제적 대응을 위해 특별교부세로 지원해 달라”고 요청했다.

강진원 관계자는 “행안부는 자연재해 예방 등 강진군 지원 요청 사업과 관련, 적극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강진=정영록 기자

“백색 향연”...무안연꽃축제 막으려나

7월25-28일 무안화산백련지서

무안군은 30일 “오는 7월25일부터 28일까지 무안화산백련지에서 제27회 무안연꽃축제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축제는 ‘내 인생의 화양연화’라는 주제로, 만개한 연꽃과 다양한 공연·행사·체험 프로그램이 관광객을 맞이한다.

무안군은 ▲개막 축하행사 ▲연꽃군민가요제 ▲전국송달국악대제전 수상자 초청공연 ▲한여름밤의 연빛달빛 야행 ▲읍·면 연꽃올림픽아드 등의 기획행사와 ▲연차 시음·행다 시연 ▲연꽃축제공회 ▲연꽃길 보트 탐사 ▲백련지 황토맨발길 걷기 등 다채로운 체험행사를 준비할 계획이다.



박문재 축제추진위원회 위원장은 “무안연꽃축제에서 청정 자연의 하얀 연꽃도 보고, 각종 체험을 즐기며, 내 인생의 가장 아름답고 행복한 순간을 만들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무안연꽃축제는 지난 2022·2023년에 전남도 대표축제로 선정되기도 했다. /무안=김상호 기자